



조사료, 가격 하락 기다리다가는 낭패?

- 국내 반입량 지난해보다 5천톤 줄어 -

월동용 조사료의 대표 주자인 갈잎의 잔여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조사됐다.

본회가 갈잎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월말 현재 국내 연합해운에 보관되어 있는 일반 갈잎 재고량은 700여톤 수준. 중국에 남아있는 물량 200톤을 합쳐도 1,000톤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갈잎큐브 잔여 물량 1,500톤을 합쳐도 최대 2,500톤을 넘지 않는다.

2,500톤 정도면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 출고된 물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지난해 정도의 출고를 가정한다면 현재 잔여 재고량은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사슴농장에 출고된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밀리는 수준”이라며 “농가의 대체사료 급여가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갈잎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농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고 물량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갈잎 작황이 좋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국내 수입업체에서 반입물량을 지난해에 비해 5천톤 이상 줄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수입업체들은 해마다 년초에 반복되는 재고처분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갈잎 물량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지난해 확보 물량을 대폭 줄였다. 더욱이 국내 창고 보관료마저 지난해 큰폭으로 상승해 과다 물량 확보는 오히려 경영상 ‘독’으로 작용됐다.

실제로 갈잎 수입업체들은 해마다 물량 확보를 위해 업체간 경쟁이 실시됐

으며 국내에 반입된 물량을 적기에 해소되지 못할 시 창고보관료 부담이 가중돼 경영상 압박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해마다 년초만되면 덤핑으로 물량을 처분하는 업체가 등장, 제값을 주고 일찍 조사료를 확보한 농가의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 더불어 매년초 반복되는 조사료 덤핑을 기다리는 농가도 해마다 늘어왔다. 그러나 조사료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올해만큼은 덤핑 제품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A업체 대표는 이에 대해 “제값을 주고 일찍 조사료를 확보한 농가들이 나중에 덤핑 판매를 보며 울화통을 터트리는 일이 다반사였고 업체로서도 원가 이하 판매를 실시하다보니 경영상 위기가 많았다”고 밝히며 “농가에게 좋은 소리도 못듣고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순환을 올해부터는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B업체 대표 역시 “년초 가격하락을 기다리며 물량 확보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큰 오산”이라며 “현재 재고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아 오히려 2월경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 12월말 조사료 잔여 물량

- 일반 갈잎

A업체 317톤, B업체 220톤, C업체 128톤

추가 확보 물량 : A업체 200톤

- 갈잎 큐브

A업체 1,500톤 **한국양륙**